

2010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노경희*

1. 서론
2. 단행본을 통해 본 연구 경향
3. 학술지 기획주제를 통해 본 연구 경향
4. 2010년도 한문학 연구 경향의 성격

1. 서론

본고는 2010년 한 해 동안(2010.1-2010.12) 학계에 제출된 한문학분야의 역주서·연구서·학위논문·학술지논문 등의 목록을 제시하고 학계의 연구 동향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수년간 한문학 연구는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 한해만 하더라도 수 백편에 이르는 학술지논문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나 한문학의 경우 원전 자료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연구사 정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 논문이 ‘문학’ 분야 이외로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양적으로나 내용면으로나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해의 한문학 연구 동향을 하나로 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 판단하고, 지난 한해 학계의 가장 특징적인 국면이라 생각되는 몇 가지 지점들을 뽑아 그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목한 2010년 학계의 주목할 만한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한문학 연구의 내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료의 발굴, 번역의 검증, 정본 확정 등 자료 본연에 대한 연구가 충실해지고 있는

흐름이다. 다른 하나는 한문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주제의 다변화, 연구 공간의 확장, 인접 학문과의 교섭 등 연구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본고에서는 ‘내실 추구’와 ‘외연 확장’을 두 축으로 하여 작년 한해 한문학 연구가 이룬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이하의 서술은 단행본, 학술지 기획주제, 총론의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며, 개별 논문의 검토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한다.

2. 단행본을 통해 본 연구 경향

2.1. 번역/역주/평설

한문학 분야의 단행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주와 평설서일 것이다. 이는 해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에 출간된 한문학 번역서들 중 주목되는 점으로는, 다양한 형식의 번역서들이 등장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1)전체를 번역한 것이냐 / 일부를 뽑아서 번역한 것이냐, 2)번역과 주석 작업에 그치고 있느냐 / 거기에 평설을 덧붙이고 있느냐, 3)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번역이냐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번역이냐, 4)한 작가의 저작을 번역한 것이냐 / 주제를 정해 그에 맞는 글을 뽑아 번역한 것이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번역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학계의 번역 작업이 분업화되고 전문화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문 번역서의 독자층이 다원화 되어 독자층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번역서가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 저서에 대해 여러 종의 형태의 번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주목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박희병은 선굴당 이덕무가 연암 박지원의 기문 10편을 뽑아 비평을 하고 서문을 달아 엮어낸 비평집 『鍾北小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조교수

選』에 대한 저서를 2권 출간하였으니, 『연암과 선굴당의 대화—‘종북소선’의 평점비평 연구』와 『종북소선』이 그것이다. 『종북소선』은 번역서이며, 『연암과 선굴당의 대화』는 『종북소선』의 평점비평을 분석한 연구서이다. 이렇게 번역서와 그 해설서를 동시에 출간하는 작업을 통해, 기존의 한문학 연구에서 번역과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번역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임을 증명하였다. 즉, 번역의 과정이 곧 그 작품에 대한 이해의 과정임을 보여주어,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난 수년간 박희병은 박지원, 이언진 등의 작품에 대해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번역서와 비전문가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번역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저서를 출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독자층에 따라 다른 형태의 번역서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경향은 출판사에서 기획하여 시리즈로 나오는 번역서를 살필 수 있다. 이미 태학사에서 10년 이상 ‘태학산문선’이라는 기획물을 통해 동서양, 고급의 명저를 번역하여 고전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근래 들어와 이러한 출판사 기획물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출판사 돌베개에서 일반인들이 고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우리고전 100선’을 비롯하여 문학동네에서 편찬한 충실한 역주가 돋보이는 ‘한국 고전문학전집’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장르는 다르지만 돌베개 기획의 한국 고전 소설을 편역한 시리즈 ‘천년의 우리소설’ 또한 한국 고전 소설을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수려한 현대어로 옮긴 고전 번역서 시리즈라 할 수 있다.

이하 2010년에 출판사 기획으로 나온 번역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출판사 기획물 번역서

1. 태학사, 태학산문선—2010년 한문학 분야 번역서 미간
 - * 김철범, 『뽕하지 않는 바위처럼』(김매순 지음)
2. 돌베개, 우리고전 100선
 - * 김대중 편역,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이익 지음)
 - * 정유진 편역, 『우리 신선을 찾아서—홍만중 선집』

3. 문학동네, 한국고전문학전집
 - * 심경호, 『서포만필』(한국고전문학전집 002)
 - * 정병설, 『원본 한중록』(한국고전문학전집 004)
 - * 이상구, 『원본 속향전(숙영낭자전)』(한국고전문학전집 006)
 - * 김현양, 『홍길동전, 진우치전』(한국고전문학전집 007)
 - * 정충권, 『홍보전, 홍보가, 옹고집전』(한국고전문학전집 008)
 - * 김준형, 『조선 후기 성 소화 선집』(한국고전문학전집 009)
 - * 이지영, 『창선감의록』(한국고전문학전집 010)
4. 돌베개, 『천년의 우리소설』
 - * 박희병·정길수 편역, 『세상을 즐겨보며 한번 웃다』
 - * 박희병·정길수 편역, 『기인과 협객』
 - *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

2.2. 연구서

2010년도에도 한문학 관련한 다양한 저서가 출간되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앞서 역주서 출판 상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역주와 평설이 접목되어, 번역과 연구가 하나로 융합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저서가 출간된 일을 들 수 있다. 앞서의 박희병의 『연암과 선굴당의 대화』(돌베개, 2010)가 그 한 예이다. 단, 이 책은 박지원과 이덕무의 저작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어 연구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일반인이 보다 친근하게 한문학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도 있으니, 이종묵의 『글로 세상을 호령하다』와 강혜선의 『나 홀로 즐기는 삶』 등이 그것이다. 이 책들은 조선시대 문인들의 작품을 주제에 맞춰 선별하고 그에 대한 번역, 해설 및 감상을 적은 것으로, 정확한 번역과 작품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를 통해 조선문인들의 작품세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문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문학의 영역을 넘어서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저술들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는

모습을 주목할 수 있다. 강명관의 『조선풍속사』가 그 한 예이며, 안대회의 『정조의 비밀편지: 국왕의 고뇌와 통치의 기술』 또한 문학을 넘어서 조선 시대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저술이다. 이렇게 한문학 자료를 다루면서도 문학 외적인 영역에 관심을 보이는 태도는 한문학계에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근년 들어서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고찰하고 대상의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저작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출판사 문학동네의 ‘키워드 한국문화’ 시리즈가 대표적인데, 이 기획을 통해 안대회의 『정조의 비밀편지』, 정병설의 『구운몽도』, 박철상의 『세한도』 등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저술들은 대상에 대해 문학적 특성만을 논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있어 대상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앞서의 번역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서에 있어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저술의 경우 출판사의 기획물로 간행되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태학사의 ‘문화의 창’ 시리즈와 문학동네의 ‘키워드 한국문화’가 그것이다. 출판사에서 한문학 연구자들과 함께 대중서를 기획하고 있는 사례들은, 그간 언어와 시대의 장벽에 막혀 일반인들과 소통이 어려웠던 한문자료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일반인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면서 한문학의 대중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한 문제점 또한 없지 않을 것이나, 자칫 화석화되기 쉬운 한문학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0년도의 출판사 기획물 연구서 출간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출판사 기획물 연구서

1. 태학사, 문화의 창

- * 강혜선, 『나 홀로 즐기는 삶』

2. 문학동네, 키워드 한국문화

- * 박철상, 『세한도』 (키워드 한국문화 01)
- * 안대회, 『정조의 비밀편지』 (키워드 한국문화 02)
- * 정병설, 『구운몽도』 (키워드 한국문화 03)

- * 김문식, 『왕세자의 입학식』 (키워드 한국문화 04)
- * 서신혜, 『조선인의 유토피아』 (키워드 한국문화 05)
- * 최기숙, 『처녀귀신』 (키워드 한국문화 6)
- * 임민혁, 『왕의 이름, 묘호』 (키워드 한국문화 7)

3. 학술지 기획주제를 통해 본 연구 경향

3.1. 한문학 관련 학회

학술지 기획주제를 통해 지난 한해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문학’, ‘국문학’ 관련 학회의 지난 한해 기획주제를 보기로 한다.

■ 한문학 관련 학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기획주제/특집	주제
1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42	한국 한시의 특징과 전개	문학
2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30	한국 한문학의 전통적 사유와 문예미	
3	한국한시학회	『한국한시연구』18	18세기 한국한시의 다양성	시대
4	국문학회	『국문학연구』21	18세기 경화사족의 삶과 문학	
5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22	근대한문학의 존재양상과 그 의의	공간
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여성 문학, 문화의 차이성, 지역성으로서의 여성 문학	
7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45	한국한문학 속의 공간과 상상	
8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44	한국문학의 로컬리티와	

			디아스포라	
9	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38	문화적 현실, 문학적 상상으로서의 길	
10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23	매천 황현 순국 100주년 기념 -매천의 삶과 문학	인물
11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45	경전해석과 한국한문학	교섭

작년의 한문학 관련 학회 기획 주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한문학의 ‘문학성’ 자체에 관심을 가진 주제이다. 동방한문학회와 근역한문학회의 주제가 그것인데, 이들 학회는 모두 한문학의 문학적 특징, 전통적 사유, 문예미 등 순수 한문학 연구에 대한 주제로 학회를 개최하였다. 동방한문학회에서는 우언시와 使行詩, 悼亡詩, 禪詩, 전기소설 삽입시 등 다양한 주제의 한시의 전통과 문학적 특징을 살피었으며,¹⁾ 근역한문학회에서는 조선문인들의 楚辭의 수용, 17~8세기 농연그룹의 기유문예 활동, 신흠과 이정구의 수사방법 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²⁾

다음으로는 ‘시대’를 주제로 하여 한 시대의 특징을 가늠하는 기획연구가 있다. 한국한시학회와 국문학회는 모두 ‘18세기 한문학’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시학회의 경우 다양한 사조가 백가쟁명하던 18세기 한국 한시의 다양성에 주목하였고, 국문학회는 문화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18세기 경화사족의 삶과 문학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에 18세기 초 문인들의 은둔자적 성격 및 김창업의 채소류 연작시, 강박의 시세계가 고찰되었고,³⁾ 경화사족

1) 송병렬, 「寓言詩의 특징과 전개 양상」; 이군선, 「使行詩의 특징과 전개 양상」; 이은영, 「못 다한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 -悼亡詩의 전통과 미」; 김미선, 「禪詩의 특징과 전개 양상」; 윤세순, 「17세기 전기소설에 나타난 삽입시가의 존재양상과 기능-「주생전」 「위경천전」 「운영전」 「상사동기」를 중심으로」(이상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에 수록)
 2) 신두환, 「朝鮮士人들의 “초사” 수용과 그 미의식」; 채미화, 「한국 고대시학 심미사유 방식 연구 -적관·感悟의 심미적 사유방식을 중심으로」; 이종호, 「17~18세기 기유문예의 두 양상 -농연그룹의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김우정, 「신흠의 “視古修辭” 와 이정구의 “隨意抒寫”에 관하여」(이상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에 수록)
 3) 이경수, 「18세기 초 문인의 은둔자적 생애와 시적 표현」; 이종묵, 「김창업의 채소류 연작시와 조선 후기 한시사의 한 국면」; 부유섭, 「菊圃 姜樸의 尙古의 시세계」(이상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에 수록)

과 관련하여 야담, 시조, 소설 등의 장르에서 경화사족들의 삶 속에 구현된 각 문학 장르의 양상이 고찰되었다.⁴⁾

‘시대’와 관련한 주제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근대’, 즉 20세기 초의 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한문학회에서는 근대문학의 존재와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이를 통해 김윤식과 송전감, 육용정, 정인보 등 근대의 한학자들의 문학활동이 발표되었고, 근대의 한문교과서와 근대한문학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⁵⁾ 20세기초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한문학에 대한 관심은 일반논문에서도 확인되는 바,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도 한문학 관련 학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주제는 ‘공간’과 관련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고전여성문학회에서는 여성문학과 문화를 다루면서 ‘지역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여성문학의 성격을 살피었고,⁶⁾ 한문학회에서는 한국한문학 속의 공간이 지니는 상상성에 초점을 두었으며,⁷⁾ 민족문학사학회에서는 ‘로컬리티’와 ‘디아스포라’를 키워드로 하여 한국문학을 고찰하였다.⁸⁾ 또한 고전문학회에서는 ‘길’을 주제로 하여 문화적 현실과

4) 이강옥, 「야담의 전개와 경화세족」; 남정희, 「18세기 시조 문맥에서 경화사족의 위치」; 이지영,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이상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2010에 수록)
 5) 김용태, 「애국계몽기 雲養 金允植의 사상과 활동」; 박영미, 「일제 감정기 松田甲의 한문학 연구에 대하여」; 황계문, 「宜田 陸用鼎의 문학과 현실인식」; 한영규, 「위당 정인보의 選詩 의식 -동아일보 ‘今古詩叢’란을 중심으로」; 신상필, 「근대한문학의 존재양상과 그 의의-근대한문학의 성격과 신해군사」; 임상석,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조선어급한문 교과서 연구 시론 -중등교육 교재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을 중심으로」(이상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에 수록)
 6)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김용철, 「『목제일기』 속의 女婢」; 홍학회, 「17~18세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송준길 가문 여성의 삶」; 장유승, 「官婢와 열녀를 중심으로」; 박명희, 「16세기 호남한시의 여성화자 유형과 의의」; 이효숙, 「『湖東西洛記』의 산수문학적 특징과 금원의 유람관」(이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에 수록)
 7) 김용태, 「한국한문학 자료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의 몇 가지 갈래」; 남은경, 「한국한문학 속의 경계, 좌절, 반성의 공간-심양」; 이홍식, 「항해 홍길주의 공간 설계와 장자」; 정학성, 「한국한문학 속의 공간과 상상」(이상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에 수록)
 8) 권순경, 「제천 義林池의 문학지리와 그 의미」; 정환국, 「전근대 동아시아와 전란, 그리고 변경인」; 양문규, 「한국근대문학에 나타난 강원도: 강릉,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장률, 「浪客 신채호와 正名의 문학-디아스포라적 위치성을 중심으로」(이상 『민족문학사연구』 44, 민족문학사학회, 2010에 수록)

문학적 상상력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⁹⁾

문학 작품 연구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이 탄생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주변 상황과 연계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문학 작품 연구를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작품 내용을 넘어서 작품을 탄생시킨 사회문화적 배경과 작품이 지니는 과급력을 함께 살피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작품의 문학성에 집중하던 기존의 문학 연구가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작품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로 한문학회에서는 경전해석과 한국한문학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이는 다른 영역과의 교섭을 통해 한문학 이해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역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시도이기도 하다. 여기서 『맹자』, 『논어』, 『주역』, 『상서』 등의 경학에 대한 해석과 한문학 연구의 접점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⁰⁾ 그 밖으로도 우리한문학회에서는 매천 황현의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황현의 삶과 문학을 조명하는 학회발표가 있었다.¹¹⁾

3.2. 국학 관련 학회

다음으로 한문학 학회는 아니지만, 한문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학 관련 학회의 기획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학 관련 학회의 지난 한해 기

9) 이승수, 「도시문화의 모세혈관, 골목길의 발견-이언진의 『호동거실』 연작 소고」; 김동준, 「몸플렉스 코드로 보는 도성과 궁궐의 길목-『해유록』·『이재난고』·『열하일기』를 중심으로」; 박무영, 「홍석주의 지리적 상상력: 『노정표』 만드는 사람」(이상 『고전문학연구』 38, 고전문학회, 2010에 수록)

10) 함영대, 「『孟子或問精義通攷』와 우암 송시열의 학술정신」; 류준필, 「『논어』 경학에서의 ‘學’ 개념과 그 인식 층위 -조선 주자학자의 ‘學而時習之’章 주석을 중심으로」; 김은정, 「17세기 초 문학작품의 易學 차용 양상 -신홍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이상욱, 「정약용, 『尙書古訓』의 의례와 存古의 문제」; 조동영, 「정조의 『四部手圈』소고」(이상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에 수록)

11) 이의강, 「매천 황현의 서정시 저변에 흐르는 두 가지 의식」; 배종석, 「매천시의 意境-萬壽洞 형상을 중심으로」; 김소영, 「매천 황현의 산문관」; 윤인현, 「매천 황현의 문학에 나타난 선비정신」(이상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에 수록)

획주제는 다음과 같다.

■ 국학 관련 학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기획주제/특집	주제
1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20	연행의 문화사	교류
2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20	동서의 만남과 실학: 동아시아 지식세계와 마테오리치	
3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69	越境의 문학, 문학의 월경	
4	남명학연구소	『남명학연구』29	老柏軒 鄭載圭의 학문과 사상	인물
5	남명학연구소	『남명학연구』30	경상우도 蘆沙學團 趙性家 · 崔瑬民을 중심으로	
6	진단학회	『진단학보』110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鄭東愈와 『書永編』	
7	연민학회	『연민학지』13	연민선생의 번역 및 주석본 소설에 대한 연구	자료
8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70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종합적 검토	
9	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17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 출간과 다산저술의 필사본 전승	
10	연민학회	『연민학지』14	베트남 문학 전근대에서 근대로	비교
11	규장학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50/51	영조대 국정 · 생활 · 교류의 조감도	시대

이들 학회의 주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최근 몇 년간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로 다른 세계와의 교류와 비교에 대한 주제를 들 수 있다. 한국실학학회에서는 ‘연

행'을 주제로 하여 연행을 통한 동아시아 문화사를 논의하였다. 여기서 그간 문학 자료로 주목받았던 '연행록' 이외에도 무역, 식생활, 演戲 등 연행 주변 상황을 함께 고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¹²⁾ '연행'이 동아시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의 현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마테오리치'를 키워드로 하여 동아시아권을 넘어선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 또한 유학, 수학, 歲差說 등 문학만이 아닌 다른 분야의 학문까지도 함께 다루어 폭넓은 이해를 시도하였다.¹³⁾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越境'을 테마로 하여 문학 안에서 '경계를 넘다'가 지닌 의미를 살핀 바 있다. 이를 통해 신희과 전후철자, 조선문인과 전겸익, 조선과 청의 문학론 비교 등 조선문인들과 다른 경계에 있는 문인들의 작품이 비교 대상으로 논의되었다.¹⁴⁾

이상의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 및 비교에 관한 연구는 그간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연구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근년 들어 동아시아를 넘어서 서양과의 비교까지 이루어지며 그 지역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다루는 대상이 문학과 역사를 넘어서 무역, 식생활, 복식사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지며 주제의 외연이 크게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사항은 자료의 발굴 및 定本, 異本 등 판본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자료 자체에 관심을 갖고 정확한 자료를 고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한문학의 내실을 튼튼히 하는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연민학회에서는 연민 이가원 선생의 번역과 주석본 소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연민선생의 『양반전』, 『금오신

화』, 『서상기』, 『춘향전』 등의 역주서 고찰을 통해 한문학 연구의 가장 기본인 번역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¹⁵⁾ 그리고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한국 국학진흥원에 소장된 책판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기획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책판이 지니는 성격과 가치 및 책판이 19세기~20세기 초 영남지방의 문집 간행에서 지니는 사회문화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¹⁶⁾ 그 밖에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지난 몇 년간 다산 저술의 定本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그 성과 중 하나로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 출간과 다산 저술의 필사본 전승에 대해 발표하였다. 여기서 『주역사전』 및 다산 저술의 원형에 해당하는 '稿本' 자료들의 성격이 논의된 바 있다.¹⁷⁾

이러한 원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연구자료를 발굴하고, 자료를 치밀하게 검증하며, 자료가 지니는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한 것으로 한문학 연구의 기본이 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우리 학계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의 연구에서 이본의 검토와 비교를 통한 정본의 확정 등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또 다른 주목할 사항으로는 한 인물 또는 한 시대에 주목하는 기획 주제의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하나의 대상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진단학회에서는 鄭東愈의 저작 『晝永編』을 주제로 하여, 작자 정동유의 가문과 저술, 사상 등의 기본적인 연구에 더해, 『주영편』에 나타난 당대 민속 인식, 국어 등 『주영편』을 매개로 살필 수 있는 당시 사회상을 함께 고찰하였다.¹⁸⁾ 또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연행·연행록」; 이철성, 「조선 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 품목」; 김철조, 「연행 과정의 식생활」; 이창숙, 「연행록에 실린 중국 演戲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박현규, 「豊潤 高麗鋪村의 유래 고찰」(이상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회, 2010에 수록)

13) 김선희, 「天·上帝·理: 조선 유학과 『天主實義』」; 이홍식, 「조선 후기 우정론과 마테오 리치의 『交友論』」; 구만옥, 「마테오 리치[利瑪竇] 이후 서양 수학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반응」; 전용훈, 「17세기 서양 歲差說의 전래와 동아시아 지식인의 반응」(이상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회, 2010에 수록)

14) 김우정, 「신희의 산문과 전후철자」; 윤지훈, 「조선 후기 문인들의 錢謙益 비평」; 이현일, 「落花詩」의 계보」; 이철희, 「조선 후기 詩中有我론 연구 서설-청대 '시중유아론'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이상 『대동문화연구』 69, 대동문화연구원, 2010에 수록)

15) 서현경, 「연민선생과 연암소설 번역-『양반전』을 중심으로」; 이대형, 「『금오신화』의 번역본 고찰-연민 번역본의 특성」; 강동엽, 「이가원 역주 『서상기』에 대하여」; 이운석, 「『춘향전』 주석서 고찰」(이상 『연민학지』 13, 연민학회, 2010에 수록)

16) 신승운/서정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문집류 책판의 성격과 가치」; 류준필, 「책판 사회, 문화적 의의 19세기~20세기 초 영남 지방의 문집 간행 사례를 중심으로」(이상 『대동문화연구』 70, 대동문화연구원, 2010에 수록)

17) 방인, 「단국대본 『주역사전』 연구-정고본 및 신조본의 저본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시론」; 노경희, 「다산 저술 『稿本』의 성격과 자료 전승 현황」(이상 『다산학』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에 수록)

18) 이종목, 「鄭東愈와 그 一門의 저술」; 정호훈, 「『晝永編』의 자료 구성과 지식 세계」; 주영하, 「『晝永編』에 담긴 정동유의 當代 민속 인식」; 정승철, 「『주영편』의 국어 연구」; 구만옥, 「『주영편』을 통해 본 정동유의 자연인식」(이상 『진단학보』 110, 진단학회, 2010에 수록)

에서는 ‘영조대’를 주제로 하면서, 각 분야의 영조대 전공자들이 모여 당시의 국정과 생활, 교류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피었다.¹⁹⁾

4. 2010년도 한문학 연구 경향의 성격

2010년도 한문학 연구의 경향을 정리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한문학 연구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내실을 추구하는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한문학 연구의 대상을 폭넓게 하는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문학계의 연구풍토에 대한 반성을 더하기로 한다.

4.1. 한문학 연구의 내실 추구

한문학 연구에서 내실을 추구하는 경향은 한문학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연구가 강화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미발굴 자료를 찾아내어 학계에 발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작업인데, 최근에는 이 작업이 개인의 작업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거나 연구소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국대학교 연민문고에 소장된 연암초고본에 대한 연구라든지, 다산학술문화재단의 다산저술 정본화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 연구는 자료 발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알려진 자료의 경우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소장된 이본 자료까지 모두 수집하여 면밀한 이본 대비를 통해 定本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내용 중심 연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작품 이해의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고 있으며, 원작자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저본의 발견을 통

해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 후기 문인들의 경우, 조선시대에 간행된 정식 간본이 전하지 않고 필사 이본만 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저작에 대해서는 이상의 연구 성과를 통해 보다 정확한 텍스트가 제공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한문학의 내실을 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작품과 작가 연구에 있어서도 작가의 생애 및 작품 내용 분석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다각도의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가 개인의 생애와 성격을 넘어서 家學의 전통, 당파, 학맥 등 작가 주변 상황의 고찰을 통해 작가의 개별적인 특징 이외로 작가를 탄생시킨 사회문화적 배경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사회 속의 인간’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작업이라 요약할 수 있다. 작품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품 자체의 문학적 성격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작품을 탄생시킨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또한 작품을 통해서 작품 속에 담겨진 당시 사회를 함께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4.2. 한문학 연구의 외연 확장

2010년 한문학계의 또 다른 경향으로는 한문학 주제의 다양화와 대상 범위의 확대를 통해 한문학 연구의 외연이 확장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공간과 시간의 확장이다. 먼저 공간의 확장을 보면, 수년간 한국한문학 연구는 중국, 일본, 베트남 문학과 비교 및 교류사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로 확장되어 왔는데, 이는 근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에는 동아시아를 넘어서 서양문학의 수용 및 비교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의 확장을 보이고 있으니, 근대, 즉 20세기 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한문학계는 18세기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문단 활동에 큰 관심을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19세기, 20세기 초까지로 그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 정호훈, 「영조대 『續大典』의 편찬논리와 그 성격」; 송지원, 「영조대 儀禮 정비와 『國朝續五禮儀』 편찬」; 조계영, 「영조대 『濔源系譜記略』의 수정과 목판 간인」; 조영준, 「영조대 均役海稅의 수취와 상납」; 연갑수, 「영조대 對淸使行的 운영과 對淸關係에 대한 인식」(이상 『한국문화』 50/5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에 수록)

다음으로는 문학의 경계를 넘어서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먼저 다른 분과 학문과의 교섭을 통해 한문학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고시가, 서지학, 고소설, 역사학 등 한문학과 이웃하는 학문 분야에서 한문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시 한문학 연구를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문학을 문학 텍스트로서만이 아닌, 한문학 자료를 통해 문학 주변주 영역을 탐구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이는 기존의 음악사, 미술사 등 예술사 연구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는데, 이제는 그 영역이 무역, 음식, 복식 등 생활사 영역으로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문학 작품 분석만이 아닌 다양한 주제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3. 단체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 환경

현재 한국 한문학계의 연구 환경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단체 프로젝트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라 한다)의 인문학 연구지원 제도로 인한 결과인데, HK(인문한국) 사업과 기초학문도대 사업 등의 형태로 학교 및 연구소 단위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이들 연구단은 한 분야의 연구자로만 구성되기보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되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각도로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학진 지원 사업의 경우 책임연구원 아래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들이 보조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의 연구 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프로젝트 주제가 곧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같은 대주제를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세부 각론을 논하는 소논문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연구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도 많아지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세대 연구자들이 선배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연구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대 주제를 단체로 협업하여 연구하는 풍토 속에서 연구가 지나치게 분업화되며 연구단의 계획과 시한에 묶이게 되는 모습도 종종 발견된다. 그로 인해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유로운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프로젝트의 주제 아래 매몰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학계 전체의 연구 방향이 대형 연구단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개별 연구들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프로젝트에 속하지 못한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 공간이 축소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개별 연구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한문학 연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학진 중심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인문학 및 한문학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1) 번역/역주/평설

- 강명관, 『사라진 서울 : 20세기 초 서울 사람들의 서울 회상기』, 푸른역사 2010.
고 산 역해, 『열하일기』, 동서문화사 2010.
김대중 편역,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 : 성호사설 선집』(이익 지음), 돌베개, 2010.
김동수 교감·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김종수 역주, 『(국역)서계연록』(박세당 지음), 해안, 2010.
김종진 [외] 옮김, 『표암유고』(강세황 지음), 지식산업사 2010.
김철범, 『뽕히지 않는 바위처럼』(김매순 지음), 태학사, 2010.
김준형 옮김, 『조선 후기 성 소화 선집』, 문학동네, 2010.
나중면 지음, 『선비를 따라 산을 오르다 : 조선 선비들이 찾은 우리나라 산 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10.
德山黃氏 橡亭公派宗親會, 『(국역)橡亭逸稿』, 서울문학출판부 2010.
박희병 [외] 역주, 『중북소선』(이덕무 평선), 돌베개, 2010.
신익철·조용희·이철희 옮김, 『간옹우묵』(이기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_____[외]공역, 『(교감역주)송천필담 : 세상을 살펴 붓 가는대로 기록하다』 1-3, 보고사, 2010.
실시학사 역, 『열하를 여행하며 시를 짓다』(유득공 지), 휴머니스트, 2010.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김만중 지음), 문학동네, 2010.
____지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선인들의 자서전』, 이가서, 2010
안대회 옮김, 『추재기이 : 타고난 이야기꾼, 추재 조수삼이 들려주는 조선 후기 마 이너리티들의 인생 이야기』(조수삼 지음), 한겨레출판, 2010.
윤한택 역, 『국역 백곡선생문집』(鄭崑壽 著), 경인문화사, 2010.
李鉉榮 國譯, 『(國譯)蓮峯先生文集』(李基高 著), 和信文庫, 2010.
이회형 옮김, 『보한집』(최자 지음),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
정 민 외 옮김, 『정유각집 : 북학파의 선구 초정 박제가 전집』, 돌베개, 2010.
____풀어씀, 『백두산 등척기』(안재홍 지음), 해냄출판사, 2010.
정병설 풀고씀, 『조선의 음담패설: 『기이재상담(紀伊齋常談)』 읽기』, 예옥, 2010.

- 정유진 편역, 『우리 신선을 찾아서 : 홍만중 선집』, 돌베개, 2010.
충북대 우암연구소 편역, 『(역주)송파유고』(임식 지음), 충북대학교 출판부, 2010.
洪承均 國譯, 『(國譯)尼溪集』(朴來吾 著), 계집국역간행회, 2010.

(2) 연구서

- 강명관, 『조선 풍속사』 1-3, 푸른역사, 2010.
강민구, 『조선후기 문학비평의 실제』, 보고사, 2010.
____, 『조선후기 문학비평의 이론』, 보고사, 2010.
강혜선, 『나 홀로 즐기는 삶』, 태학사, 2010.
김은정, 『연암 박지원의 풍자정치학』, 한국학술정보, 2010.
김종수, 『서계 박세당의 연행록 연구』, 해안, 2010.
박대현,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아세아문화사, 2010.
박철상, 『세한도』, 문학동네, 2010.
박희병, 『나는 골목길 부처다 : 이연진 평전』, 돌베개, 2010.
____, 『연암과 선굴당의 대화』, 돌베개, 2010.
배규범, 『불가 잡채시 연구 : 장치와 해체의 시학』, 지식을 만드는지식, 2010.
심경호 지음, 『책, 그 무시무시한 주술』, 흥익출판사, 2010.
안대회, 『정조의 비밀편지 : 국왕의 고뇌와 통치의 기술』, 문학동네, 2010.
____,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시대를 위로한 길거리 고수들 이야기』, 한겨레출판, 2010.
여운필, 『韓國 中世의 漢詩 研究』, 월인, 2010.
원주용, 『조선시대 한시 읽기』 상하, 2010.
이성무 외, 『아계 이산해의 학문과 사상』, 지식산업사, 2010.
이종득, 『글로 세상을 호령하다』, 김영사, 2010.
이종찬, 『옛시에 취하다』, 한결음더, 2010.
이혜순, 『전통과 수용 : 한국 고전문학과 해외교류』, 돌베개, 2010.
정 민,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태학사, 2010.
____, 『한시 미학 산책』, 휴머니스트, 2010.
정병설, 『구운몽도 : 그림으로 읽는 『구운몽』』, 문학동네, 2010.
최기숙, 『처녀귀신 : 조선시대 여인의 환과 복수』, 문학동네, 2010.

2. 학위논문

(1) 박사학위논문

권혁순, 「완당 김정희 한시의 자연관 연구 발행사항」, 홍익대 박사논문, 2010.
 김광수, 「김득신의 시론과 시의 관련 양상 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2010.
 김순천, 「조선후기 여성 지식인의 주체 인식 양상 : 여성성의 시각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논문, 2010.
 김주부, 「식산 이만부의 산수기행문학 연구 : 『지행록』과 『누항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0.
 박대현,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2010.
 유영욱, 「교정청본 사서언해의 정확적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10.
 이규운, 「허균의 문장론과 그 구현 양상」, 성신여대 박사논문, 2010.
 이은주, 「신광수 <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2010.
 임명호, 「조선후기 한문학의 아숙론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10.
 장유승, 「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0.
 조문주, 「유몽인 산문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2010.
 조준주, 「조선조 여류한시에 형성된 '정한'의 고찰」, 원광대 박사논문, 2010.
 황만기, 「청음 김상헌 시문학에 나타난 의리정신」,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0.

(2) 석사학위논문

공봉순, 「물암 김응의 생애와 한시세계」, 안동대 석사논문, 2010.
 구슬아, 「이규보의 글쓰기 방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0.
 권민우, 「촌은 유희경 시세계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0.
 김경희, 「춘소 신최의 산문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김영은, 「백이론의 전통과 박지원의 백이론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10.
 김원갑, 「『맹자』의 호연지기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10.
 김은일, 「『금생이문록』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2010.
 김인구, 「이옥의 『백운필』 연구 : 동식물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김종민, 「미산 한장석 산문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김종진, 「학곡 홍서봉의 한시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2010.
 김종태, 「검간 조정의 진사일록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김청아, 「<육미당기>의 공간 양상과 문학·사회적 의미」, 충남대 석사논문, 2010.
 박윤자, 「허난설헌 시문학 연구 : 감흥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10.
 박진성, 「조선 후기 자전적 글쓰기 연구 : 17·18세기 산문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0.

서강선, 「『점필재집』의 재판본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10.
 서은경, 「『삼국유사』와 『일본영이기』의 불교영험설화 비교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10.
 선미현, 「신작의 『시차고』 연구: 체제와 해석방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손민서, 「이옥 『전』 연구: 작가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10.
 심범, 「와룡 허호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2010.
 양재성, 「연경재 성해옹의 산수기 연구: 『동국명산기』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2010.
 우묘, 「18세기 조선 문인의 청나라에 대한 인식 연구 : 『연행록』에 나타난 화이사상 및 북학사상을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논문, 2010.
 원종석, 「단곡 객진 문학 연구: 향촌활동과 한시세계를 중심으로」, 안동대 석사논문, 2010.
 윤혜경, 「주희의 『논어집주』와 유보남의 『논어정의』에 나타난 '인'의 해석학적 비교」, 성신여대 석사논문, 2010.
 이경미, 「계암 김령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10.
 이동현, 「『송천필담』의 글쓰기 방식과 문예의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0.
 이승용, 「이광사 유배기 한시의 서정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이승재, 「위당 신헌 한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이항미, 「적암 조신의 한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10.
 장상현, 「공자의 예치사상에 대한 연구: 논어를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논문, 2010.
 전수경, 「한필교의 『수사록』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정광희, 「17·18세기 조선의 명대 당송파 수용양상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10.
 정목주, 「퇴계 '청량산'시의 양상과 의미」, 영남대 석사논문, 2010.
 丁生花, 「주지번의 문학 활동과 한중 문화 교류」, 석사논문, 2010.
 정영식, 「동계 정온의 문학세계 : 직도를 중심으로」, 안동대 석사논문, 2010.
 증사제, 「박지원 기의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천부성, 「옥봉 백광훈의 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2010.
 최상근, 「강준흠의 『삼명시화』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최정숙, 「이규보 산문 연구」, 호남대 석사논문, 2010.
 한수희, 「호곡 남용익의 사행문학 연구: 『부상록』·『문견별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황봉덕,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3. 학술지 논문

- 강동석, 「李穀의 시세계와 자아의식」, 『한문교육연구』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강명관, 「주체 없는 근대, 장지연론」,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 강명해, 「『삼국유사』의 편찬의도 및 전략」, 『溫知論叢』 25, 온지학회, 2010.
- 강미정, 「成侃의 <용부전>을 통해 본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와 회복 과정」, 『한국고전연구』 2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강민구, 「목은 이색의 질병에 대한 의식과 문학적 표현」,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한문학에 나타난 갈등의 문학적 해소-신흥의 질병으로 인한 갈등과 해소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3,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권근의 질병과 정서의 문학적 표출」,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김종직의 질병과 문학적 표출」,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조선 관료문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반응의 문학적 표출양상-서거정의 경우」, 『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강상순, 「조선시대 필기, 야담류에 나타난 귀신의 세 유형과 그 역사적 변모」,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 강석중, 「홍석주의 『학강산필』」,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강정화, 「19'20세기 江右學者의 지리산 인식과 천왕봉」,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知足堂 朴明傳의 삶과 시세계」,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학회, 2010.
- 강지희, 「퇴계의 「和陶集飲酒二十首」에 나타난 도연명 수용 양상-소동파, 매월당과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학회, 2010.
- 강혜규, 「조선전기 方外人의 산수유람」, 『한국문화』 5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 강혜선, 정조의 문체 비판 재론」, 『한국문화』 4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 강혜정, 「김천택의 교유와 『청구영언』의 편찬 과정 검토」,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고전문학한문학회, 「한문학 2009년 연구동향」,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구본현, 「한시에서 '言外之意'의 개념과 그 구현 원리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_____, 「한시에서의 用事 활용 양상 연구 -성공적인 用事의 요건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
- 구선우, 「『水村漫錄』소재 豫言詩話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66, 어문연구학회, 2010.
- 구지현, 「17世紀 通信使 筆談唱和集의 出現과 初期 形態」,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 _____, 「1682년 한일 문사 교류 담당층의 확립과 소통의 확대」,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 권순영, 「霧峯 高敬命의 使行詩 연구」,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권오민, 「韓醫 書籍의 海外 流轉과 刊行의 意義」,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 권오민·안상우, 「韓醫 書籍의 海外 流轉과 刊行의 意義」, 『東洋漢文學研究』 30, 동양한문학회, 2010.
- 권오영, 「퇴계의 <陶山雜詠>의 理學的 含意와 그 進승」,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권혁명, 「寓菴 洪彥忠의 한시 연구」,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2010.
- 권혁진, 「유산기를 활용한 지역교육 -<淸平山記>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김광년, 「息庵 金錫胄의 疏筭類 산문 연구」,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학회, 2010.
- 김규선·구사회, 「裕齋 宋基冕의 선비정신과 시세계」,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김근태, 「西陂 柳僖의 江西詩派 수용 양상에 대하여」, 『한문고전연구』 2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김기주, 「공자의 정치적 이상사회, '正名'의 세상」, 『동방한문학』 43, 동방한문학회, 2010.
- 김남기, 「조선 국왕의 한시에 나타난 天氣의 인식과 표현 양상」,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_____, 「世祖의 文治策과 詩世界」,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 김동욱, 「퇴계가 등장하는 성소화」,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현실이 된 노래, <황조가>」,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김동준, 콤플렉스 코드로 보는 도성과 국경의 길목-『해유록』, 『이재난고』,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 김동하, 「訥齋 朴祥)의 賦 연구」,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김명호, 일본 東洋文庫 소장 『燕巖集』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5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 _____, 『열하일기』 이본의 재검토 -초고본 계열 필사본을 중심으로」, 『동양학』

-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김문식, 홍경모가 기록한 정조의 화성행차,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김미선, 「三唐派 백옥봉의 불교시 세계」, 『한문고전연구』 2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_____, 「禪詩의 특징과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거문학회, 2010.
- 김보경, 「遊金剛錄」에 나타난 再思堂 李蘊의 산수 인식과 그 정신사적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김병주, 「삼국시대 충효사상에 대한 고찰-삼국사기 열전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김석태, 「梵海覺岸의 頭輪山 漢詩」, 『韓國言語文學』 제73집, 한국어언어학회, 2010.
- 김선희, 「天, 上帝, 理: 조선 유학과 『天主實義』」,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 김성수, 「장유의 辭賦文學-修身·頌祝·呪術」, 『한문고전연구』 2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김성진, 癸未使行時의 筆談唱和와 大阪의 混沌社,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 _____, 「朝鮮後期 小品文과 養生」, 『東洋漢文學研究』 30, 동양한문학회, 2010.
- 김소영, 「매천 황현의 산문관」,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김승룡, 「고려 후기 한시의 '가난'에 대한 시선들」,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 김승호, 「한중간 불경설화의 수용방식과 변이양상: 觀佛三昧經의 佛影談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8집, 국제어문학회, 2010.
- 김시덕, 「『구로다 가보』와 『조선통교대기』」,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기요마사 고려진 비망록』의 해제 및 번역(上)」,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김양진, 「十干의 어휘 의미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김영주, 「東圃 金時敏의 문예관 연구」,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학회, 2010.
-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흙영』과 『이재난고』를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제30집, 동양한문학회, 2010.
- _____, 「사대부 문인화가 金箕書의 『화초만고』」, 『고전과 해석』 제8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 _____, 「해암 유경종의 잡록 『破寂』 연구 -작자 고증과 내용 제요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김용태, 「애국계몽기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의 사상과 활동」,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한국한문학 자료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의 몇 가지 갈래」,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월고(月皐) 조성가(趙性家)의 시인적 면모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30,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
- 김용철, 「『목재일기』 속의 여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김영숙, 響山 李晩燾의 現實認識과 文學적 對應樣相,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 김영주, 「安重觀 記文의 의론성 연구」, 『동방한문학』 43,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淸冷子 崔守哲의 시세계」,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 _____, 「박지원의 필사본 小集들과 自編稿『煙湘閣集』 및 그 계열본에 대하여」,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김예진, 「『한동아집첩』과 오세창의 사회활동 연구」,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김우정, 「신흙(申欒)의 산문과 전후칠자(前後七子)」,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_____, 「심익운(沈翼雲)의 「說文」과 산문세계」, 『한문교육연구』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_____, 신흙의 「시고수사(視古修辭)」와 이정구의 「수의서사(隨意抒寫)」에 관하여,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김윤섭, 「金時習 晩年期의 內面意識에 관한 小考」, 『한국문화』 5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 김윤조, 「誄의 문체적 특성과 문학사에서의 양상」,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 _____, 「19세기 중반 경화 지식인의 독서와 세상 읽기-홍한주 일기 해제」,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김은정, 신흙(申欒)의 청언(淸言) 선록집 『야언(野言)』 연구,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
- _____, 「17세기 초 문학작품의 역학(易學) 차용 양상 -신흙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45, 2010.
- 김재동, 「草廬 李惟泰의 『四書答問-大學』 연구」,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 김재욱, 「목은 이색의 시와 꽃」, 『고전과 해석』 제8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 김정숙, 「전등신화(剪燈新話)와 『요재지이(聊齋志異)』의 韓日에의 전래 그 변화와 수용의 궤적」,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김종복, 「수정본 『渤海考』의 내용과 집필 시기」, 『대동고전연구』 26집, 한림대 대동고전연구소, 2010.
- 김중서,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시의 표현 양상과 미의식」,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_____, 「사촌(沙村) 김윤제(金允階)와 문예공간 환벽당(環碧堂)의 의미」,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김중철, 「수당(修堂) 이남규(李南珪) 율문의 형식과 수사특성」,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다산(茶山) 논(論)의 문체 특성」,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김주수, 「송강 한시와 가사의 비교 연구 -〈대인회별오음(代人戲別梧陰)〉와 〈사미인곡(思美人曲)〉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김주순,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한시에 나타난 도연명의 은일관」,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학회, 2010.
- 김주원, 「훈민정음 해례본의 책 크기」,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김준욱, 「문화변동의 확장과 전이 -16세기초 유배시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학회, 2010.
- 김지홍, 「『언문지』의 이본들에 대하여」, 『서지학보』 36, 한국서지학회, 2010.
- 김진경, 「睡軒 權五福의 삶과 정신 지향」,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_____, 「잠암(潛庵) 김의정(金義貞) 부문학(賦文學) 연구-작품에 형상화된 주제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 김진욱, 「매천(梅泉)의 삶과 문학: 『구안실신고(苟安室新稿)』 연구」,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김진욱, 「매천(梅泉) 민속시 <상원잡도영> 특성 연구」,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학회, 2010.
- _____, 「한시에 투영된 지식인의 청학동 인식 연구」, 『남명학연구』 30,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
- 金淸煥, 「禪과 詩에 共存하는 妙悟 一考」, 『溫知論叢』 25, 온지학회, 2010.

- 김향숙, 「윤선거 부자 문집의 간행과 휘판에 대한 고찰」, 『서지학보』 35, 한국서지학회, 2010.
- 김현욱, 「책문(策問)에 나타난 정조의 학문관」,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김철조, 「연암 박지원의 <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연구 -개작 과정과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연행의 문화사 ; 연행 과정의 식생활」,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 김형술, 「서명 미상 필사본 시선집의 자료적 가치」,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2010.
- _____, 「『海嶽傳神帖』에 나타난 詩書 교섭의 새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김형태, 「1748년 제10차 무진통신사(戊辰通信使) 의원필담(醫員筆談)의 성격 변천 연구 -『대려필어(對麗筆語)』와 『조선필담(朝鮮筆談)』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김혜숙, 「朝鮮詩의 完成과 詩人의 才能」, 『韓國詩歌研究』 28, 이회, 2010.
- 나려형, 「申叔舟의 對日 관찰과 기록 : 『海東諸國記』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8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 나종선,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서간문'에 나타난 의리정신(義理精神)과 항일 의식(抗日意識) 고찰」, 『동방한문학』 43,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철리시(哲理詩) 연구」,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남영진, 「금령 박영보와 소동파」,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남은경, 「한국한문학 속의 경계, 좌절, 반성의 공간 -심양(瀋陽)」,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노경희, 「다산 저술 '稿本'의 성격과 자료 전송 현황」, 『다산학』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 _____, 「일제강점기 京城 거주 일본인의 한국 고문헌 연구 활동」, 『서지학보』 35, 한국서지학회, 2010.
- _____, 「오사카 부립도서관의 韓本 문고」,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류영수,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 연구 (1)」,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학회, 2010.
- 류준필, 「책판 사회,문화적 의의 19세기~20세기 초 영남 지방의 문집 간행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_____, 「『논어』 경학에서의 '學' 개념과 그 인식 층위 -조선 주자학자의 '學而時

- 翫之'章 주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리학당·우림걸, 17-18세기 中韓 문인 간의 문화교류와 상호작용 현상 일고찰, 『한국실학연구』 19, 한국실학학회, 2010.
- 맹영일, 「기속시를 통해 본 18C 민간생활상 -국포(菊圃) 강박(姜樸)과 모헌(慕軒) 강필신(姜必愼)의 기속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2010.
- 문범두, 「介庵 姜翼의 學行과 文學」, 『韓民族語文學』 56, 한민족어문학회, 2010.
- 문성대, 「이항복의 골계적 기질과 웃음의 이면: 문학작품과 우스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2010.
- 문중양, 「조선의 마지막 사대부 천문역산가 남병철」,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박경남, 「모곤(茅坤)과 왕세정(王世貞)의 교유와 그 공통적 지향점 -신취(申叟)의 『황명이대가문초(皇明二大家文抄)』를 통해 본 모곤(茅坤)과 왕세정(王世貞)」,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2010.
- _____, 「김창협(金昌協)의 산문 비평을 통해 본 글쓰기 방법론 -"주제 잡기"와 "단락 구성"의 문제」,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2010.
- _____, 「18세기 文學觀의 변화와 '개인'과 '개체'의 발견(1)」,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_____, 「18세기 朝鮮의 은광 개발 열풍: 安命觀과 無賴輩을 위한 頌歌」,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 _____, 「김창협(金昌協)의 비평을 통해 본 왕세정(王世貞) 산문의 진면목 -상관(商販) 비지문(碑誌文)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박금규, 한말 애국 한시고, 『문예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65호, 문예연구사, 2010.
- 박동욱, 「연객 허필의 예술 활동과 일상성의 시학」,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산운(山雲) 이양연(李亮淵)의 영사(詠史), 회고시(懷古詩) 연구」,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두 사람의 유배인과 한 명의 제주 목사-조완, 조정철, 김영수」, 『문헌과 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그 많은 하루의 시간들을 어이 할까」,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염라대왕이 부르지 않는데 스스로 가는가」,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고사리 손으로 먹 장난치던 네가 그림구나」,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박명희, 「16세기 호남한시의 여성화자 유형과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_____, 「경렴정(景濂亭) 탁광무(卓光茂)의 삶과 시적 구현」,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기문학회, 2010.
- 박무영, 「'삼사(三事)' 꿈, 홍길주의 「여의침명서」 재론을 곁해」,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홍석주의 지리적 상상력: "노정표" 만드는 사람」,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 박무영·김성은, 「환처(宦妻)」, 다시 읽기-여성 담론을 읽는 한 방법적 시론」,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 박상도, 「일본내의 김삿갓 문학에 대한 평가양상」,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박세인, 「수은(睡隱) 강항(姜沆)의 연작형 제영시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기문학회, 2010.
- 박숙희, 「고려(高麗) 다시(茶詩)에 나타난 탈속과 양생의 미학」,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박영미, 「일제 감정기 송전갑(松田甲)의 한문학 연구에 대하여」,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일제 감정기 在朝 지식인 多田正知의 한문학 연구에 대한 試論」, 『어문연구』 65, 어문연구학회, 2010.
- _____, 「친일의 도구, 한시 그리고 클리셰(Cliche)」,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2010.
- _____, 「韓日 문사의 교유시를 통해 본 상호인식 -추담(秋潭) 유창과 하야시 라잔(林羅山)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박영민, 「琴仙, 사회적 관계망과 정체성 찾기」,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 박영호, 「조선시대 사환일기(仕宦日記) 연구-박래겸(朴來謙)의 『서수일기(西繡日記)』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박종선, 「『熙朝日事』 주제별 인물고찰」, 『한문고전연구』 2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박종성, 「『아희원람(兒戲原覽)』의 문헌적 성격에 관한 연구」,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학회, 2010.
- 박중훈, 「형암(炯庵) 이덕무(李德懋)의 초기 시 고찰-『한객건연집』을 중심으로」,

-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박준원, 「최술(崔述)의 『맹자사실록(孟子事實錄)』 연구」,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박철상, 「방산 윤정기의 <진홍왕복수비가>」,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언음첩고』의 저자 고증」,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조선후기 문인들의 印章에 대한 인식의 일면」, 『한문교육연구』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박해남, 「18세기 조선의 漢詩에 나타난 近代性 탐색」, 『韓國詩歌研究』 28, 이회, 2010.
- 박현규, 「『乙丙朝天錄』에 드러난 許筠의 모습과 작품 세계」,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 _____, 「풍운(豊潤) 고여포촌(高麗鋪村)의 유래 고찰」,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 _____, 「북경(北京) 유리창(琉璃廠) 화폭과 한국 고문헌」,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 박혜숙, 「다산 정약용의 노년시(老年詩)」, 『민족문학사연구』 4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 방 인, 「단국대본 『주역사전』 연구 -정고본 및 신조본의 저본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시론」, 『다산학』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 배석호, 「이용악의 「평남관개시조」 고찰」,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배종석, 「매천시(梅泉詩)의 의경-만수동(萬壽洞) 형상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백미나, 「탁전(托傳), 비지(碑誌), 열전(列傳)의 서사적 특징과 의미-최해(崔灌)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부길만, 「조선 시대의 독서」, 『시와문화』 13, 시와문화사, 2010.
- 부유섭, 「국포(菊圃) 강박(姜樸)의 상고적(尙古的) 시세계」,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_____, 「연행록을 통해 본 강옹(康雍) 연간 중국 서적 유입에 대하여」,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서인희, 「조광조의 현실인식과 정치개혁」,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_____, 「靜菴 道學政治思想의 연원 고찰」,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서정화, 「『益齋 李齊賢의 古文倡導』에 대한 재검토」,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 서철원, 「<普賢十願歌>와 禪詩를 통해 본 종교시의 서정성 문제」,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 서한용, 「이덕무의 중국 문자학 인식」,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서형범, 「傳統 知識人 丹齋 申采浩의 省察의 主體로서의 글쓰기 의식」,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 성범중, 「새해맞이 한시 연구 -설날 의례와 풍속 관련 한시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성영애, 「『律呂新書』에 대한 黃胤錫의 見解: 『이재난고』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26, 온지학회, 2010.
- 손유경, 「복재(服齋) 기준(奇遵)의 유배기 작품에 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손혜리, 「성대중의 사행체험과 『일본록』」,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成大中の 『仙槎漫集』 研究」,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 송병열, 「천자문류의 변용과 성격 고찰」,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_____, 「우언시(寓言詩)의 특징과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 송병우, 「고려시대 외교문서의 양상과 수사학」, 『東洋漢文學研究』 30, 동양한문학회, 2010.
- 송재용, 「『묵재일기(默齋日記)』와 『미암일기(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의 관혼상제례」,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송지원, 「명나라 유민, 궁녀 굴저와 비파」,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성현의 거문고 스승, 이마지」,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관동별곡』의 저자, 안축」,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고구려 유민의 후손, 발해음악가 고내웅」,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송호빈, 「18·19세기에 보이는 꽃의 생태에 대한 관찰과 한문학비평의 한 양상 : 박지원 · 이덕무 · 이옥의 경우」, 『고전과 해석』 8,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신두환, 「계곡 장유의 한시에 나타난 ‘초사’ 수용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2010.
- _____, 「성호 이익의 <離騷解>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조선시인들의 <초사> 수용과 그 미의식」,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

- 회, 2010.
- 신로사, 「신미(1811) 통신사행(通信使行)과 문화 교류에 관하여」,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신상필, 「근대한문학의 성격과 신해금사」,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천군류(天君類) 출현의 철학적 기반과 서사문학적 지위」,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異本을 통해 본 『剪燈新話句解』의 전과 양상과 그 함의」, 『古小說研究』 29, 월인, 2010.
- 신승운·서정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문집류 책판의 성격과 가치」,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신승훈, 「龍洲 趙綱 散文論 一考: 文學觀의 再檢討를 검하여」,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신영대, 「한시의 이해와 감상 43」, 『시사문단』 통권89호, 시사문단사, 2010.
- 신은경, 「漢詩의 長形 標題에 대한 문체론적 연구」, 『韓國言語文學』 제74집, 한국언어학회, 2010.
- 신태영, 「『皇華集』 소재 한시의 특징과 양상 -명 사신과 조선 집반사의 수창」,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 신향림, 「연암 박지원의 만년 사상에 대한 재론-맹인 설화와 <答任亨五論原道書>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신현웅, 「옥구재 영미편(穎尾編)의 자료적 특징과 가치」,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심경호, 「강화학과 관련 새 자료의 발굴과 강화학과 연구의 과제: 이광려의 간찰 자료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3호,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10.
- _____, 「고려비지(高麗碑誌)의 역사적 특성과 문체적 특징에 관한 일 고찰」, 『연민학지』 14, 연민학회, 2010.
- _____, 「조선시대 한문학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방식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41,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10.
- _____, 「한시산책, 14: 기교인가 형성인가: 對의 딜레마」, 『서정시학』 제20권 제1호 통권 제45호, 서정시학, 2010.
- 안대회, 「김홍도에게 그림을 부탁하는 편지」,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18세기 기괴침신(奇詭尖新) 한시의 한 양상 -서명인(徐命寅)의 『취사당 연화록(取斯堂煙華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조선 후기 연행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연행사를 보내는 송서(送序)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 한국실학학회, 2010.
- _____, 「徐命寅의 樂府詩 창작과 국문시가」, 『한국시가연구』 28, 이회, 2010.
- _____, 「正祖 御諱의 改定: ‘이산’과 ‘이성」, 『한국문화』 5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 _____, 「18-19세기 조선의 백과전서파와 『화한삼재도회』」, 『대동문화연구』 69, 성균관대출판부, 2010.
- _____, 「18-19세기 탈춤꾼·山臺造成匠人 卓文漢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3권 4호 통권 12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안상복, 「중국 지방지를 통해 본 동북 3성의 정월연회」,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안세현, 「조선전기 한문산문에서 『장자』 수용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조선후기 누정기의 특징적 면모」,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안순태, 「정조 연간의 文衡 연구」, 『한문고전연구』 2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_____, 「남공철 문학의 연원에 대하여 -그 家學的 性격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 안장리, 「한국광경시의 전개에 있어서 김시습의 역할」,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 안재순, 「『허생전』의 실학적 성격」, 『어문학보』 31, 강원대사범대 국어교육과, 2010.
- 양보경, 「『동환록』과 19세기 역사지리학」,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양희찬, 「漢詩 <呼兒曲>의 時調譯 作法에 대한 考察」,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 2010.
- 어강석, 「稼亭 李穀의 在元期 시에 나타난 교유양상과 정신적 갈등」,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엄경흠, 「芝峯 李暉光의 在明京 外國 使臣 交流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 여은필, 「오광운의 <感遇> 28수 연구」,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_____, 「오광운의 시인식에 관한 연구」,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연갑수, 「영조대 對淸使行의 운영과 對淸關係에 대한 인식」, 『한국문화』 5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 오석환, 「김창협(金昌協)의 서발류(序跋類) 문장에 나타난 문장기법 연구」,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오이환, 『남명집(南冥集)』 제판본(諸板本)의 간행년대, 『남명학연구』 29,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
- 옥영정, 「비소설 한문방각본 간행에 대한 서지적 고찰」,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 _____,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족보, 동몽서(童蒙書), 지지(地誌), 일기류 등 책판의 성격과 가치」,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_____, 「남병철, 남병길 형제의 저술과 간행」,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원주용, 「근재(謹齋) 안축(安軸) 시문에 나타난 신의(新意)의 양상 고찰」,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백문보(白文寶)의 시대인식에 대한 대응과 문학」,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학회, 2010.
- 유순영, 「문명정의 <진상제도>: 명대 중기 한 서화수장가의 초상」,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유영봉, 「왕조교체기의 귀화시인 설손과 설장수 부자」,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유영옥, 「晦峰 河謙鎭의 『國性論』 분석」,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유재빈, 「어제가 있는 근신 초상-일본 천리대도서관 소장 『초상화첩』 1권을 중심으로」,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유호진, 「신광환의 시에 나타난 상상력과 사유 방식-16세기 前半 관각문인 한시의 轉變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 윤승준, 「필사본 『추운다집(秋雲茶集)』의 자료적 가치」,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윤인현,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선비정신」,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_____, 「매천 황현의 문학에 나타난 선비정신」,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한시 이론인 用事와 點化의 주체적 수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권 2호 제4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 윤재환, 「『日觀詩草』를 통해 본 秋月 南玉의 日本 認識」, 『고전과 해석』 제8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_____, 「少陵家の 使行 經驗과 詩的 形象化」,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_____, 「寅齋 申概의 기문을 통해 본 의식세계와 그 문학적 형상화」,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_____, 「기문을 통해 본 매산 이하진의 의식지향과 표현 양상 - 「卜居梅山記」와 「白碧山記」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 _____, 「조선조 지식인들의 신라인식과 시적 형상화」,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2010.
- _____, 「小陵 李尙毅의 「차지봉영고죽운」 64수 검토」,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소릉 李尙毅 使行詩 연구-「丁酉朝天錄」과 「辛亥朝天錄」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윤조현, 「한문 학습자의 誤譯 양상 연구」,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윤지양, 「같은 이야기 다른 연출, 동서상과 왕서상」,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윤지훈, 「조선후기 문인들의 전경의 비평」,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_____, 「東海 趙琮鎭의 서예취미와 첩에 대한 일고」,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농암 김창협(金昌協)의 당송과 수용과 변주에 관한 일고-김창협 選 『八大家文十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이경수, 「18세기 초 문인의 은둔자적 생애와 시적 표현」,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이경하, 「소혜왕후 『內訓』의 『小學』 수용 양상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이군선, 「사행시(使行詩)의 특징과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 _____, 「홍경모(洪敬謨) 「나덕헌전(羅德憲傳)」 분석」,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이국진, 「이학규 잡체시 연구」,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이권희, 「玉所 權變의 文學觀 研究」, 『어문연구』 66, 어문연구학회, 2010.
- 이규운, 「허균이 지향하는 삶 -허균 「傳」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이기훈, 「조선시대 『국어』 유통과 활용-『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 이동순, 「이언진 시의 白話 수용 양상」, 『고전과 해석』 8,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_____, 「충암(沖庵) 시의 이미지 특성」,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 이려추, 「김운초(金雲楚)의 ‘잡시’ 세 편에 대한 고찰」,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 이민희, 「한남서림(翰南書林)의 백두옹(白斗鏞) 연구 -새 발굴 자료 『가장도서첩(家藏圖書帖)』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 이병찬, 「『詩言志』의 過程詩學的 研究」, 『어문연구』 66, 어문연구학회, 2010.
- 이상동, 「醇齋 金在華의 文章論」,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 이상욱, 「정약용, 『상서고훈(尙書古訓)』의 의례(義例)와 존고(存古)의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이성형, 「연행사들의 間文化的 체험에 대한 인식 양상 고찰-임란 수습기 상장례(喪葬禮)와 문물 인식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_____, 「연행록의 백이, 숙제 관련 한시 연구-임란 수습기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2010.
- 이승수, 「도시문화의 모세혈관, 골목길의 발견-이연진의 「호동거실」 연작 소고」,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 이연순, 「『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중반의 날씨 기록과 표현」, 『한국고전연구』 2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이영호, 「현암(玄庵) 이을호(李乙浩)의 다산(茶山) 논어학(論語學)에 관한 연구」, 『동방한문학』 44, 동방한문학회, 2010.
- 이월영, 「『어우야담』 소개 인물담 연구 (1)」,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2010.
- 이은영, 「못 다 한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 -도망시(悼亡詩)의 전통과 미」,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 이은주, 「『통해백팔사(統海百八詞)』의 지방 형상화 연구 -19세기 새로운 지방의 발견」,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이의강, 「매천(梅泉) 황현(黃玟)의 서정시 저변에 흐르는 두 가지 의식」,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이인숙, 「파초의 문화적 의미망들」,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 이재숙, 삼괴당(三魁堂) 신중호(申從濩) 시세계 연구,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이종묵, 「정동유(鄭東愈)와 그 일문(一門)의 저술」, 『진단학보』 110, 진단학회, 2010.
- _____, 「조선의 명품 매화 정당매」, 『선비문화』 17, 남명학연구원, 2010.
- _____, 「문화 : 이덕홍의 「부부유별도」」, 『선비문화』 18, 남명학연구원, 2010.
- _____, 「김창업의 채소류 연작시와 조선 후기 한시사의 한 국면」,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_____, 「조선의 명품 매화-이정귀의 흥매」,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정우옹이 통신사로 가는 이면구에게 준 글」,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19세기 말 박규수가 살던 계동의 풍경」,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이가 빠진 일에 대한 단상」,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이종한, 「朝鮮前期 園林文化의 한 局面」,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이종호, 「17~18세기 기유문예의 두 양상 -농연그룹의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근역한문학회 30, 2010.
- 이주현, 서위의 시화에 나타난 매화의 모습과 그 의미,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이준규, 「金海 燕子樓 原韻詩에 대하여」, 『東洋漢文學研究』 제30집, 동양한문학회, 2010.
- 이창숙, 「연행록에 실린 중국 연희(演戲)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 _____, 「오산에서 삼충대회대로」,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이철성, 「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 품목」,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 이철희, 「조선후기 「詩中有我」론 연구 서설-청대 「시중유아론」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이태형, 「이제현(李齊賢)의 소식(蘇軾) 호방사(豪放詞)의 변용 고」,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학회, 2010.
- 이흥식, 항해 홍길주의 공간 설계와 장자」,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이현일, 「임제(林悌)의 『겸재유고(謙齋遺稿)』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19세기 한시의 소품취(小品趣) -신위(申緯)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_____, 「낙화시(落花詩)의 계보」,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_____, 「조선의 시인 과학자 남병길-『만향제시초』 읽기」,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東坡 수용 양상」, 『중국문학』 62, 한국중국어문학

- 회, 2010.
- 이현호, 「어당 李象秀의 『史記』 評述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이홍식, 「조선 후기 우정론과 마테오 리치의 『交友論』」,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 이효숙, 「호동서라기(湖東西洛記)의 산수문학적 특징과 금원의 유람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이 훈, 「동해(東海) 조종진(趙踪鎭)의 관북(關北) 紀行과 『동해북유록(東海北遊錄)』 연구」,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이희목, 「매천 황현의 산수시 소고」,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 임상석,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조선어급한문 교과서 연구 시론 -중등교육 교재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임원혁, 「碑誌文에 나타난 亡人の 形象化 方式」,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 임유경, 「김경서전(金景瑞傳)」 연구 -문제적 인물의 영웅화 과정,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임채명, 시문을 통해 본 신숙주 가계의 일본에 대한 관심,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_____, 朝日 시문에 나타난 통신사행단의 馬上才 공연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2010.
-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연행, 연행록」,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 장도규, 「조선오현의 삶과 시 일고」,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장병한, 「백운(白雲) 심대운(深大允)의 기(氣), 신논(神論)과 천(天), 인논(人論) 연구 -19세기 동학사상과의 연관성 파악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白雲 沈大允의 儀禮正論에 대한 小考」,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장유승, 「노정고(澗亭稿)를 통해 본 세시풍속시(歲時風俗詩)와 해동낙부시(海東樂府詩)의 창작 배경」,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_____, 「명당을 찾아서-『옥룡자답산가』」,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경매장에서 건진 보물-『소화아집』」,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홍경모의 생애와 저술」,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시의 시대-『詩傳大全』」,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정경주, 치진 제문의 형식과 애도의 표현양상,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 정경훈, 송시열 문학의 영향원(影響源)과 이단적 면모,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2010.
- _____, 「震溟 권현의 文氣와 天機」, 『동방한문학』 43, 동방한문학회, 2010.
- 정길수, 「<道康高家婦詞>의 형식과 목소리 -한문 단편서사시 분석 시론」, 『고시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정대립, 「홍석주의 시론 연구」,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
- 정 민, 「정학연(丁學淵)의 공후인시첩」, 『다산학』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 _____, 다산이 이강희의 이름으로 추사에게 보낸 편지,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일민미술관 소장 『다산송철선증언첩』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정병호, 「自靖殉國日記와 韓末 嶺南 선비의 形象」,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 정석태, 「畢齋 金宗直에 대한 退溪 李滉의 評價」,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정선모, 북송사행(北宋使行)을 통해서 본 박인량(樸寅亮)의 문학사적 위상,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정순희, 정약용 전의 명명(命名)과 주제 구현 방식,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2010.
- 정승혜, 「동양문고 소장 한문본 『노걸대』의 신발굴」,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정영문, 「사행록에 기록된 지방공연문화의 변모양상」, 『溫知論叢』 제24집, 온지학회, 2010.
- 정용수, 「동아시아 海洋神仙문화의 성립과정과 그 경로」,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정우봉, 「18세기 함흥 기생 가련(可憐)의 문학적형상화와 그 의미」, 『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_____, 신재 홍낙명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일고찰,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일기문학의 관점에서 본 감담일기의 특징과 의의」,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조선 후기 협기(俠妓)의 유형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

- 문학회, 2010.
- 정우락,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한국학논집』 40,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10.
- 정은진, 「茂亭 鄭萬朝의 친일로 가는 思惟」,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 정일남, 「다산 정약용의 ‘屈騷’ 수용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열하일기』의 연암형상 일고」,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 정학성, 「한국한문학 속의 공간과 상상」,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정호훈, 「『주영편(晝永編)』의 자료 구성과 지식(知識) 세계」, 『진단학보』 110, 진단학회, 2010.
- 정환국, 「전근대 동아시아와 전란, 그리고 변경인」, 『민족문화사연구』 44,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 _____, 「訟事小說의 전통과 『神斷公案』」, 『한문학회』 23, 우리한문학회, 2010.
- 정후수, 「북경 인삼국(人蔘局) 공간 활용-19세기 한중 인사의 교류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 조계영, 「영조대 『濔源系譜記略』의 수정과 목판 간인」, 『한국문화』 5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 조동영, 「정조의 『사부수권(四部手圈)』 소고」,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조상현, 「禪詩를 통한 깨달음의契合 -한국 禪僧의 呈露偈 및 傳法偈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조영호, 「劉希慶 한시에 나타난 ‘淸’의 성격」, 『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조원일, 「漢代初期 儒學에 대한 研究: 詩經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24, 온지학회, 2010.
- 조지형, 「경산(京山) 이한진(李漢鎭)의 생애와 문예 활동」,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_____, 「자암(自菴) 금구(金綬)의 유배 생활과 “우중유락(憂中有樂)”의 면모」,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조창록, 「풍석(楓石), 서유구(徐有구),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 조한륜, 「정약용이 성동일에게 보낸 감사 편지」,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조희창, 「노수신(盧守愼)의 시세계-해동강서시파(海東江西詩派)의 시론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주기평, 「韓中 悼亡詩의 서술방식과 상징체계」,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 지신호, 「조선 중기 한시에 나타나는 몸의 두 가지 양상 : 남명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 진성수, 「17-18세기 한중일 유학에서의 인간이해 연구-王夫之·丁若鏞·尹藤仁齋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진재교, 「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최척전〉 독법의 한 사례」,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조선의 更張을 기획한 또 하나의 『北學議』-『雪岫外史』」, 『한문학회』 23,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방산 윤정기와 『시경강의속집』」,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풍산 홍문과 훈곡 홍희준」,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진준현, 「날뚱으로 흩어진 김홍도의 풍속도병풍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채미하, 「한국 고대시학의 심미사유 방식 연구 -직관(直觀)·감오(感悟)의 심미적 사유방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천부성, 「옥봉(玉峯)의 시세계」,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 최석기, 「남포(南圃) 김만영(金萬英)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 『한문학회』 23,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의 『대학』 해석」, 『한문학회』 22, 우리한문학회, 2010.
- 최 식, 「조선 후기 필기의 특징과 양상-풍산 홍씨 필기류를 중심으로」, 『한문학회』 22, 우리한문학회, 2010.
- 최애영, 심의(沈義)의 「대관재기몽(大觀齋記夢)」에 대한 현대적 읽기의 한 시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 최영준·이승매, 「『詩品』의 江淹 詩評에 대한 분석」, 『溫知論叢』 24, 온지학회, 2010.
- 최유미, 「결핍을 극복하는 두 가지 방식 : 허난설헌의 한시와 김혜순의 시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제24집, 온지학회, 2010.
- 최윤영,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거사」,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최윤희, 「『손천사영이록』의 도교적 면모와 의미」,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 최은주, 「조선 후기 영남선비들의 여행과 공간감성」,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

- 문학회, 2010.
- 최재남, 「哭子詩의 창작전통과 양식적 특성」, 『대동한문학』 32, 대동한문학회, 2010.
- 최창익, 「『천주실의』에 대한 문학적 접근」,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코바코바 울리야나, 「『한국기록문화유산의 서술』 소개」,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하정승, 정추(鄭樞) 시에 나타난 자유지향의 정신과 관조의 미」,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한계호, 「鄭夢周 시의 역학적 해석」,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 한영규, 「위당 정인보의 選詩 의식 -동아일보 '今古詩叢'란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_____, 「식민지시기 한문문장가 계보의 일단」,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 _____, 「19세기 여학문화의 비평가, 남병철」,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함영대, 「『맹자혹문정의통고(孟子或問精義通攷)』와 우암 송시열의 학술정신」,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_____, 「화이지변에 대한 소고」, 『문헌과해석』 50,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왕충, 맹자를 꾸짖다-맹자비판론1 : 자맹편」, 『문헌과해석』 51,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사마광, 맹자를 의심하다」, 『문헌과해석』 52, 문헌과해석사, 2010.
- _____, 「성인과 중인-맹자 인간론1」, 『문헌과해석』 53, 문헌과해석사, 2010.
- 함정식, 「무진사행 의학문답 및 치험 사례 기록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 함정식·차웅석, 「무진사행 의학문답 및 치험 사례 기록 연구: 『對麗筆語』·『韓客治驗』·『桑韓醫問答』을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제30집, 동양한문학회, 2010.
- 한대문, 「조선후기 通信使와 四溟堂」,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 허경진, 「표류민 이지향과 아이누인, 일본인 사이의 의사 소통」,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 허경진·박순, 「『東人詩話』를 통해 본 語와 意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55집, 한국문학회, 2010.
- 허권수, 「월고(月皐) 조성가(趙性家)의 학자적 생평과 시의 특성」, 『남명학연구』 30,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

- 황병호, 「耳溪 洪良浩의 書論 小考」,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황수연, 「조선시대 규훈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기대와 경계」,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 황위주, 「점필재 김종직 연구에 대한 반성적 전망」,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 _____, 「日帝強占期 以文會의 結成과 活動」, 『대동한문학』 33, 대동한문학회, 2010.
- 황의열, 「조선조 문인의 지리산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지리산 유람시의 검토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9,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0.
- 황재문, 「의전(宜田) 육용정(陸用鼎)의 문학과 현실인식」,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황혜진, 「고전소설 소재 인물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 : 『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대상으로」, 『古小說研究』 29, 월인, 2010.